

대명코퍼레이션 사명 변경... '대명소노시즌' 출범

- ▶ 렌탈 플랫폼 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브랜드 비전 담아
- ▶ 신성장동력인 렌탈 사업에 역량 집중, 빠른 시장 안착 자신

<2020-03-27> 대명코퍼레이션(007720, 각자대표 김정훈, 권광수)이 '대명소노시즌'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대명코퍼레이션은 27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명 수정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대명소노시즌은 신성장동력인 렌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체질 개선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변경된 사명은 이상향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소노(SONO)'를 모티브로, 새로운 형태의 렌탈 플랫폼 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 또한 꾸준히 렌탈 분야 역량 강화에 집중해 온 기업 내 프로젝트 팀(소노시즌팀)의 명칭을 사명으로 적용, 신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명소노시즌은 이번 사명 변경을 전환점으로 신규 렌탈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방문 및 투숙 고객이 직접 사용하고 구매하는 기존 사업자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고객 체험 중심의 렌탈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최고 품질의 매트리스 및 침구류를 기반으로 빠른 시장 안착을 전망하고 있다.

국내 1위 리조트인 대명소노그룹의 인프라와 브랜드 파워 역시 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이를 전망이다. 실제 대명소노그룹의 전국 17개 호텔&리조트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쇼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명소노시즌 권광수 대표는 "착실하게 쌓아온 대명코퍼레이션의 MRO(기업소모성자재) 역량을 새롭게 출발하는 대명소노시즌에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신사업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대명소노시즌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대명소노시즌은 올해 상반기 내 렌탈 사업의 정식 B2C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 자료문의 : 대명코퍼레이션 김양호 매니저 02) 2222-7863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 6011-2000(#138)